

여수산단 급식소에 지역 농산물 공급

여주시-산단공장장협의회-농협 구매협약 산단 급식소 내년 쌀 682톤 지역쌀로 구매

여수국가산단 내 집단급식소가 내년부터 급식에 필요한 쌀 682톤을 지역 생산 쌀로 구매하기로 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여수산단 집단급식소 지역 농산물 구매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여수시장과 민경호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회장(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 유태성 농협여수시지부장, 배상현 여수농협조합장, 박상근 여천농협조합장, 강진형 울촌농협조합장, 김용진 여수원에농협조합장, 박계수 여수축협조합장 등

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역 농산물을 여수산단 집단급식소 식재료로 사용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단 내 집단급식소 쌀 소요량의 100%인 682톤이 지역쌀로 공급된다.

또 산단 급식소 측은 지역에서 생산한 일반 농산물도 점차적으로 구매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산단 급식소를 순회 방문하고,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



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에는 지역 친환경농산물 육성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94억 원의 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장흥군,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 '눈길'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선자)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번역서비스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통·번역서비스는 올해 1년 동안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족간의 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센터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한 일본어 통·번역지원사가 상시 근무하면서 초기입국자에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네팔어

통역108회 · 번역180회 · 정보제공1,217회 실시
초기입국자에 안내·내방·전화·이메일 통해 지원

가족생활, 부부간 의사소통, 입국초기 상담,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에서부터 자녀 교육 과정 통역지원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서비스는 센터 내방 또는 전화 이메일 통해서 제공했다.

공공기관 이용 시 동행통역과 취업 관련 통역,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통·번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통·번역서비스 추진사항을 보면, 통역 108회, 번역 180회, 정보제공 1,217회, 총1505여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부동산 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

무안군은 최근 오피스텔 내 들어 서게 될 오피스 에듀포레 푸르지오 1,531세대와 호반 베르디움 1,388세대의 분양 일정이 올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마무리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이뤄질 가수요자들의 불법 전매행위 및 중개업소의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오피스텔에 분양 중인 신규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기한이 1년으로 기간 내 전매 시 불법적인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규정은 주택법에 의거 관련 당사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특히 당첨자의 경우 공

급계약 취소 및 향후 1년간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의 경우에도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안군은 그동안 부동산중개협회 무안군지부의 협조로 청약기간 동안 모델하우스 주변의 일명 '떡다방' 단속 등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이제는 청약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터넷상 부동산 불법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의심물건의 경우 향후 표본 정밀조사를 시행해 불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 '군수 체험 삶의 현장' 농어촌버스 승차 도우미 변신

22일 '군수 체험 삶의 현장'에 나선 김성 장흥군수가 농어촌버스 일일 승차 도우미로 변신했다.

장흥군은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살피기 위해 매달 '군수 체험 삶의 현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전 회진면 삭금마을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탄 김 군수는 정류장마다 내려 무거운 짐을 든 승객들을 도왔다.

버스가 이동하는 중간에는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진면에서 출발한 버스는 대덕읍, 관산을 용산면을 거쳐 장흥읍으로 도착했다.

김성 군수는 민선6기의 최대 공



약으로 내세운 '군민존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015년부터 군민들의 삶의 현장 찾아가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매생이 수확, 쓰레기 수거, 감자수확, 야간 방법순찰, 기업체 일일 사원 등 농어업 생산현장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봉사와 체험을 실시해 왔다.

장흥=김종민 기자



포스코 해피스틸하우스 31호 준공식 장흥군 대덕읍 양하마을...15명 안락한 새 집 완성

21일 장흥군 대덕읍 양하마을에서는 포스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철강협회와 장흥군이 함께한 '해피스틸하우스 31호', '희망가꾸기 25호' 준공식이 열렸다.

이번 해피스틸하우스는 EBS방송 연계로 저소득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해, 포스코, 현대철강협회가 후원하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장흥군이 함께 진행해 완성했다.

스틸하우스는 단열과 내진설계를 강화한 주택으로 포스코에서는 건축비용과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을 지원했다.

장흥지역에서는 한국국제정보공사 장흥강진지사서 경계측량

을, 장흥군건축사회 지우건축사에서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재능기부를 해 15명의 안락한 새 집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여러 기관·단체에서는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입주를 축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도움을 준 포스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현대철강협회, 네트워크와, 주택신축을 할 때마다 재능기부를 해 주신 한국국제정보공사 전라남도 장흥건축사회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진도군, 섬마을 사랑·온정 손길 펼쳐

진도군은 '작은 섬 봉사단'을 구성해 최근 조도면 내병도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대민활동을 통해 주민수가 적은 작은 섬에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특성상 장애나 장비를 수배하기 힘들어 수리 할 업무가 나지 않는 노후 가옥에 대해 창틀교체, 벽체수리, 도배 및 장판교체를 실시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전라남도 서민 배려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 봉사 활동에는 진도군청 도서개발담당 직원들과 조도면사무소 직원 등 10여명의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함께 참석했다.

마을 주민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독거노인의 노후된 가옥을 수리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봉사단 때문에 작은 섬 마을에 활기가 돌고 애로사항을 해결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광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군